

개혁주의 종말론(종말론과 조직신학의 각론들과의 관계)

강의 : J.Kamphuis 교수
통역 : 유 해 무 교수

종말론이 신앙교리의 종착점이라는 점에서 생각해 보려고 한다. 사실은 종말론의 기본노선이나 기본방향에 대해서 이야기 하려고 한다. 종말론이 역사적으로 마지막이라는 점에서 종착점도 포함되지만, 조직신학의 각론들의 노선이 종말론에서 완결로 보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해보려고 한다. 우리가 종말이라고 하면 마지막이라는 직접적 관계에서 보려고 하나 저는 종말론과 조직신학의 각론과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가령 종말론과 기독론과의 관계를 살피려고 한다. 우리는 여기에서 새로운 용어를 접하게 되는데 우리가 종말론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있지만 태초론에 대해서는 생소하다. 그래서 종말론과 태초론, 종말론과 언약, 종말론과 섭리, 종말론과 성령론 그리고 종말론과 성령론과 종말론과 신론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려고 한다.

① 종말론과 기독론과의 관계이다. 우리가 기독론이라 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속에서 아들을 통해 하신일에 관한 우리의 신앙 교리이다. 갈 4:4 '때가차매' 성자께서 우리에게 오셨다. "때가차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육신으로 오게 하셨다." '때가차매' 할 때 그때에서 우리가 출발점을 삼아서 '때' 즉 마지막을 향해서 나아가 보려고 한다. 따라서 종말론과 기독론의 관계, 즉 때와 때들이라는 관계에서 연결해 보려고 한다. 때가차는 그것이 기독론과 종말론과 연관지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라고 요약되어 있다. '지고 간다는 것'은 우리의 죄과가 화해되었다, 즉 어린양이 담당하셨다는 말이다. '지고 간다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보면 또 다른 의미가 있다. '지고 간다는 것'은 등에 친다고 볼 수 있으나, 지고서, 가지고서 버린다는 의미와 죄의 세력을 완전히 제거해 버린다는 의미이다.

이러므로 이것은 죄를 화해할 뿐만 아니라 죄를 화해시키는 보편적인 길이 열렸다는 뜻이다. 어린양이 죄를 지고 간다는 것을 화해적인 의미로 이해해야 되는데, 그것이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문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어린양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간다는 것이 우주적이고 완전히 역사적인 구속사역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화해하셨다로 기록하고 있다. 다른점은 이해하기 전에 보편적인 결과를 가지고 있는 어린양의 화해 사역에 주목해야 된다. 골고다에 있었던 속죄사역이 세상의 구속 사역으로 연결된다. 사람들이 꿈꾸고 있었던 것이 골고다에서 실제로 이루어졌다.

역사의 한 시점, 때가 차매 어린양이 오셔서 골고다에서 행하신 그 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때들, 우주적, 역사적 전체의 의미로 확대되어 가는 것이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구름을 타고 돌아오는 것이다.

별레같이 갯세마네에서 수난을 당하던 분이 나중에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때가 찰때 오신 어린양이 당신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늘의 새 예루살렘에서도 새 어린양으로 머물고 계실 것이다. 바로 이와같은 예들을 통해서 종말론은 기독론에 철저히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종말에 관해서 믿을 때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 그리스도 밖에서 사변적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② 종말론과 태초론이다. 마지막과 첫째것들의 비교, 연결이다. 갈 4:4에서 나오는 것처럼 때가 차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들을 속죄하셨다. 그 죄를 지고 없애버렸다. 죄가 이처럼 중요해서 때가 차서 어린양이 오게되어 나중에 종말론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 죄가 역사의 어느 시점에서 들어왔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아주 간단히 말해서 역사는 죄없이 시작되었다. 낙원에서는 죄가 없었다. 아담과 하와는 좋게 피조되었고, 역사상 죄가 없었던 시절이 있었다. 바로 이와 같은 것을 고백하는 것이 창세기 첫 몇장의 역사적 신뢰성을 받아들이는데 아주 중요하다. 현대 성경 비평학은 창세기 1~3장의 역사적 신뢰성을 부인한다. 이 역사적인 주류의 유입을 부인한다는 것은 성경을 믿지 않는다는 것인데, 그것을 통해 죄가 처음부터 있었다는 것을 현대 신학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의 화해의 재물로 보내신다는 것은 좋게 피조되었던 창조물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창조와 재창조는 서로 대치해있지 않다. 그것은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다. 동시에 칼빈 사상의 기저이다. 재세례파에서는 창조와 재창조를 대치시키는 이원론의 실수를 범하고 있다. 그러므로 재세례파에서는 유아세례를 동의할 수 없게 된다. 아이 또는 결혼 자체가 이세상에 속하기 때문에 이세상 피조계에 속한것은 재창조가 불가능하므로 유아세례는 불가능하다.

예수께서 하신 재창조는 창조 자체를 보존하는 동시에 마지막까지 보관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창조부터 마지막까지 선을 그어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 처음하신 일에서 마지막까지 하실 일까지 연결시켜 보자. 성경의 낙원이 새 예루살렘의 모형이었다. 낙원에서 생명나무가 있었던 것처럼 새 예루살렘에도 생명나무가 있게 된다. 이것이 종말론과 태초론의 관계

이다.

③ 종말론과 언약과의 관계이다. 성경 창세기 2장4절에 최초로 여호와 하나님이 나온다. 성경 비평에서 2장4절까지와 그 이후를 나누어 가지고 성경의 창조에 관한 두 가지 기사가 있다고 한다.

전반부는 창조의 날에 관해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리고 하반부는 역사(톨레도트)가 시작되고 있다. 2장5절부터 그 이전까지 되었던 창조가 이제는 종말론을 향해 가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 전반부까지는 하나님의 창조주로서의 위엄을 보여준다면 그 이후부터는 역사의 하나님, 야웨로서 일하는 하나님으로 보여주고 있다. 역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으로 이끌고 있다. 그 말씀은 언약의 말씀이다. 그래서 낙원에서의 언약을 생각하게 된다. 특별히 언약을 생각하는 사람이 개혁파들인데, 만약 언약에 관해서 말한다면, 성경의 초두에 그 용어 자체도 안 나올 뿐 아니라, 낙원에서의 관계 자체를 언약에 넣어 표현하는데, 행위언약이라는 용어는 합당치 못하다. 행위와 타락뒤에 온 은혜를 대조를 시킬 때, 행위는 낙원에서 인간이 어떤 공로를 얻음으로 하나님께 주장하는 위치를 사게 된다는 오해를 사게 된다. 그래서 가령 자연언약, 창조언약이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자연적으로, 발생적하여 있게 된 언약을 생각하게 되므로 그것은 좋지 못한 용어이다.

따라서 낙원언약이라 부르고 싶다. 낙원에서도 하나님과 인간사이에 언약과의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만 확정된다면 용어는 괜찮다. 게다가 낙원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이름인 아웨를 창 2장 : 4절에서 하는 것으로 보아 낙원언약의 존재를 분명히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어떤 의무를 부가했다. 선악과 즉, 선택의 나무를 먹지 말라는 테서 의무가 나타난다. 선악과에 관해서 요약해보면,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발적, 임의적인 선택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율적 존재가 되지 말라는 의무에서 죽음의 위협을 연관시켰다. 아직까지 죄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당신의 진노를 가지고 인간들을 경고하셨다. 먹지 말라는 의무, 그와 관계된 위협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와 동시에 약속도 주셨다. 그 약속이 인간에게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낙원의 생명나무이다.

창 1장을 읽어볼 때 감명적인 것이 동산 중앙에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스스로 결정해서 취하게 되는 자율적 태도에서 돌아서게 해 주는 경계가 생명나무에서 있었다. 사실은 하나님은 그 생명나무에서 인간을 부르고 계신 것이다. 생명나무의 생명은 인간이 그냥 존속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얻게 되는 인간의 삶 자체를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 언약을 받을 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생명을

받았고 그 생명이 하나님안에서 영원히 주어질 것을 약속받았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서두에서 말하는 것과 연관시켜 보자. 거기에서 말씀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말씀을 통해 세계만물이 지음을 받았다고 한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었고, 사람들의 빛이었다.

칼빈은 이 생명수가 낙원에 있었던 성례전이라 말했다. 생명나무와 연관된 말씀이 타락뒤에 우리를 위해 오신 어린양과 그렇게 연관시켜서는 안된다. 성육과는 관계없는 말씀이신 성자께서는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생명수였다. 어린양과 말씀과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를 바라볼 때, 자신과 장래를 생각하게 되었다. 낙원에서 언약이 있었다는 것은 그 언약의 완결로서의 종말에 관한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그때에 타락이 일어났고 그 뒤에 비로소 중보자가 와야 하는 필요성이 있었다. 그 중보자는 언약의 중보자이다.

언약의 중보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태초에 먼저 하셨던 창조 자체를 고소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거부한 것이다. 거부한 우리에게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없게 된 것이다. 언약과 하나님과의 교제를 버렸다는 것은 결국은 의무에서 금지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방역하여 자율성을 추구했다는 것이다. 선악을 알게하는 선택의 나무를 먹었다는 그 자율이 바로 죄의 뿌리이다. 그 다음부터 은혜의 시대가 시작된다. 따라서 낙원의 언약이 은혜 언약으로 변했다. 그러나 이 양자를 절대로 대치시키면 안된다.

우리가 깨뜨린 교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시켜 주었다. 다른점에서 인간은 피조된 하나님의 아들이다. 피조되었을 뿐 아니라 낙원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었다. 죄인으로 입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과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에 의하여서 창조된 자녀이자, 입양된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반역자가 되었다. 죄는 이 세상의 전체를 훼손시켰으며 온 세상이 죄 때문에 탄식하고 있다고 바울은 말한다(롬8: 22). 가장 근원적인 최초의 환경의 오염은 죄였고 자율이었다.

우리의 죄가 이 세상의 구조 자체를 분리해 놓았다. 그것이 우리의 죄라는 것을 알게되면 우리의 구세주가 얼마나 감사한가를 알게 될 것이다.

죄가 모든 것을 파괴시킨데 비해 예수 그리스도는 이것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으로 만드셨다. 올바른 그리스도의 설교가 전 우주적인 의미를 지니게 된다. 절대로 설교자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이 아니라 복음과 우리의 설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나아가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과 화해하셨다. 이것이 복음과 은혜언약의 중보자와의 관계이다.

④ 종말론과 섭리의 관계이다. 섭리는 두 가지로 나누어 하나님께서 만물

을 보존하는 것과 만물을 통치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양자의 관계를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보존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그 만물을 직접 보존하시고 간수하신 것이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그 피조된 하늘과 땅은 하나님의 보존하는 사역 없이는 존속할 수가 없다.

창 1장에서 하나님의 보존하는 사역 자체가 하나님의 통치 사역인 것을 보게된다. 보존 하심으로 그 세상과의 관계를 계속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을 지배하시고, 통솔하는데 이 통치와 보존은 어떤 목표를 향해가고 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피조사역과 그에 따른 보존과 통치사역이 창 1장에서 하나님의 안식에 집약된다. 그 안식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더불어 동참할 수 있는 안식이며, 안식을 통해서 마지막에 있게 될 완전한 안식을 예언해주고 있다.

통치는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사역을 보여주며, 하나님께서 어떤 목표의 도중에 있다는 것을 통치에서 보게된다. 하나님은 어디로 가고 계신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완성을 위하여 가고 있다. 우리의 타락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있다. 타락은 끔찍한 것이나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길을 막을수가 없다. 성경에 좋은 예가 있다. 바로를 세운 것은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한 것이다. 로마서에서 출애굽기를 인용하여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가는 길을 막을 수 없고 적그리스도도 그길을 방해할 수 없다. 방해할려고 하지만, 결코 할 수 없다. 도리어 하나님에 대하여 반역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더 나타나게 된다고 한다.’ 설교에서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받고 있는 교인들이 위로를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온 만물을 다스린다는 것이다. 2차 대전때 감옥소에 있는 교인들이 이 말로 위로를 받았던 것이다. 이제 섭리를 보존 통치와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주목해 보자. 지금까지는 섭리를 다루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언급이 않되었다.

일반적으로 초두에도 섭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것처럼 하다가 늦게 그리스도가 언급된다.

역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의 협력을 통하여 어떤 목적을 향해서 나아간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들이지만 하나님의 형상됨을 거부한 자들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유일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치하신다는 것이다.

삼위일체를 생각한다면 그리스도도 하나님니까 하나님인 그리스도 안에서 통치하시는 것과 같지 않느냐 생각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오류를 범하

게 된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스린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안에서 다스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온 그리스도 안에서 다스린다는 것이다.

우리와 동일한 육신을 가지고 오셨고, 지금도 육신을 가지고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의 통치권의 위임을 받았다. 마태 28:18절에서 한글 번역에는 수동태로 되어 있으나 원문에는 능동태로 되어 있다. 원문에는 ‘하늘과 땅의 권세가 내게 주어졌으니’가 아니라 ‘내가 넘겨 받았으니’라고 되어 있다. 그렇게 볼때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수행의 몇 시기를 구분해 볼 수 있다.

먼저 자신을 비하시켜서 화해의 도구가 되셨다. 그 화해 사역을 잘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권세가 주어졌다. 이것이 아주 멋있게 요한계시록 5장에 계시되어 있다. 요한이 하나님의 보좌와 그 주위의 24 장로의 보좌, 그 오른손에는 책 두루마리가 있고, 그 안과 밖에 많은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작정의 책이다. 하나님의 작정은 역사에서 완성되어져야 한다. 아무도 그것을 할 수가 없으나 하늘과 땅에서 외침을 듣게 된다. “누가 그 책을 열겠느냐” 요한은 도살된 어린양을 보게된다.

요한계시록 5장에서 각 장에서 나타나는 어린양을 들 잊지 말아야 하다. 바로 그 어린양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하나님은 전능자시고, 그 전능자는 인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통치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편적, 우주적 화해로 우리를 다스리신다. 성경의 전체를 관통하여 볼때 하나님께서는 종말을 향한 역사로 나아간다고 볼 수 있다. 어린양으로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통하여 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복음의 요약인데, 우리의 불순종과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묵묵히 걸어가고 계신다. 그렇지만 그 목표가 천국과 지옥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물론 그것은 사실이지만 유일한 참 진리만은 아니다. 우리의 목표와 하나님의 목표는 새 하늘과 새 땅, 즉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다. 이것이 간선이라고 할 때 거기에는 지선과 조그만 노선이 있는데 통치하는 그리스도 밖에는 어둠과 지옥이 있다.

종말론과 어린양의 사역을 살펴볼 때, 그리스도 밖에는 죽음과 어둠밖에 없다. 그 아들을 믿지않는 자들에게는 이미 심판이 왔다는 뜻이며, 하나님의 진노 안에 있다는 것이다.

⑤ 종말론과 성령론이다. 성령론과 신론, 삼위일체론 전체를 살펴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인들을 위해 성령을 취득하셨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는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너희들이 보고 있는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했다. 따라서 성령은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마지

막날에 주시는 선물이다. 요엘서를 보아서 마지막날에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령은 언약의 선물이며 온 세상에 주신 것이다.

성령이 그리스도께서 신약 교회에 주신 언약의 선물이며 너희와 너희 자손에게 주신 선물이다. 성도들에게 거하시는 성령께서는 장차 마지막에 임할 심판을 경고하고 있다. 성령은 하나님의 사역의 완성을 향해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 성령의 이 같은 하나님의 사역의 완성자로 임한다는 것이 역사의 초두에 나와있다.

성경의 초두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더라고 되어 있다. 이 엄청난 의미를 다 깨달을 수 없지만 수면에 운행하는 성령은 역사의 초두부터 하나님의 사역에 동사하기를 원하셨고 그 동일한 성령께서 또 역사의 마지막에 성도들에게 임하셨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는 없다. 그리스도가 성령을 보내셨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바로 성령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을 한다. 요한계시록 4장에는 하늘의 영화로운 보좌와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은 전능자시며 그 보좌앞에 하나님의 일곱영이 빛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온 세상을 향해 나아간다는 뜻이다.

5장에서 어린양이 그 책을 갖는 것과 성령과 동일한 점이 있다. 5장에서는 세상으로 나간 일곱영이 모두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다.

역사에서 삼위 하나님과 함께 동사하는 것을 보게 된다.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에 대해서 말해보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과 영원한 삼위의 하나님임을 안다. 본체론적 삼위일체론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영원토록 함께 거하시고 그 본체론적 삼위께서 역사에서 삼위 하나님임을 스스로 계시하시고 있다. 그것을 계시적 삼위 일체라고 부른다. 개혁 신학의 큰 임무 중에 하나가 본체론적 및 계시적 삼위 일체를 밀접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대 신학의 특징중의 하나는 본체론적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데에서 시작된다. 따라서 계시적 삼위일체를 고수한다고 하지만 그 관계가 모호해지기 때문에 본체론적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자가 계시적 삼위일체를 절대로 고수할 수 없다. 현대 신학의 삼위일체론은 가장 거짓된 신앙 교리이다. 개혁신앙 고백서에 있는 것 같이 개혁신학에서 이 양자를 분명하게 파악하고 고수해야 한다. 요약하면, 창조는 삼위일체적 빛 안에서 서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다. 게다가 제 삼위성령께서 수면에 운행하신 것을 볼 수 있다.

창조를 삼위 일체의 빛 아래서 볼 수 있다면 역사 또한 삼위일체론의 빛 아래서 보아야 한다. 전능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할 때 성육된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하신다. 성령께서는 보좌앞의 일곱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다. 창조, 역사뿐 아니라 종말도 삼위의 빛 아래서 볼 수 있

다. 이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는 만유의 주로 계신다. 창조, 역사, 종말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에게로 이루어진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께 돌려드린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 이 세상을 다 통치하고 난 종말에 가서도 세상을 위임받은 통치자로서의 위임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비하하셔서 화해하셨고 이제는 영광을 받으시고, 세상의 통치자로서 군림하신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일을 하시고 새 예루살렘에서 사라질까?

많은 신학자와 더불어 칼빈도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것을 다 양보하시고 창조전에 가셨던 성자로서의 신분만 만족하시고 스스로 하신다고 한다. 그러나 이 점에서는 칼빈을 존경하는 것과는 반대로, 따를 수가 없다.

성경의 근거가 칼빈의 주장보다 훨씬 강하며 성경에서 새 예루살렘에 어린양의 자리가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읽어 보면, 빛안에서의 생명은 바로 어린양이 그 빛이며 등이라고 되어 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화해 사역을 통해 받게된 세계의 통치권을 아버지께 돌려드리지만은, 당신이 구원을 빛으로 우리에게 통치하던 그 나라를 획득한 비추어 주시는 분은 말씀이신 그리스도이다. 성자 하나님은 낙원에서도 생명을 주셨고 그리스도안에서만이 죄인에게도 생명이 가능해졌고 그 어린양 안에서 영원토록 생명이 존속되게 해 주셨다. 바로 이것이 언약의 성취이다. 언약의 뜻은 교제이다. 그 언약아래서 약속도 주시고 의무도 주신 것은 언약아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이다. 성령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 관계를 생성시켜 준다. 이 은혜의 중보자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속이 나누어지는 것처럼, 은사로서 주어진 성령께서 교제를 계속 가능케 하시며,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이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논자의 의도는 종말론 자체를 성경 전체에서 조명함으로써, 기독교적 대망의 기준 노선이 어디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했다. 그것이 바로 신증합과 확실성이다. 이때까지 그 기준 노선들의 여러가지를 살펴보았는데, 유일한 의도는 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지성적 자극에서는 신증한 경종자체가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전 통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가슴은 너무나 기쁘다.